

교회소식

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당분간 주일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꼭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길 권면 드립니다.
2.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묵상에 힘을 쓰십시오.
3.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합니다.
4. 긴급재정지원이 필요한 성도의 가정에 교회에서 \$900불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65	1, 2, 21, 24, 31, 38, 46	
감사 헌금	CD \$120	1, 2, 12	
십일조	CD \$70	2	
장년 출석	11명	어린이 출석	15명

가정예배 지침서

1. 예배 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2. 의복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시청은 큰 기기 하나를 준비해서 가급적 온 가족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각 개인이 다른 기기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온 가족 구성원이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돌아가며 맡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는 기도와 예배 인도는 아버지, 대표기도는 어머니, 성경봉독은 자녀들이 맡으면 됩니다.
4. 찬양은 동영상을 참고하여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부릅니다.
5. 설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동영상 시청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합심기도는 5가지의 기도제목 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마침기도는 연장자가 하겠습니다.
7.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8. 헌금은 E-transfer로 합니다. (mahanaim0904@gmail.com) 수령 확인 후 재정부에서 확인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사순절 네번째 주일 가정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여는 기도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다트머스한인교회의 모든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재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은이
찬양	약할 때 강함되시네 주 품에 품으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함께
대표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p>빌립보서 4:4-7</p> <p>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p> <p>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p> <p>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p> <p>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p>	말은이
설교	감사함으로 아뢰라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동영상 참조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감사해	다함께
합심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2. 우리 모두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아픈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일상의 회복을 위해 4.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5.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 	다함께
주기도문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p> <p>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p> <p>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p> <p>- 아멘 -</p>	다함께

결국 노바스코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예배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왔습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일상이 거의 마비되다시피할 정도로 전세계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전해지는 뉴스속보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쁨과 감사”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가장 찾기 힘든 단어이며 동시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도바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차마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분명 상황과 여건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사도바울을 그 스스로가 기쁨에 사로잡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지사새옹지마”라는 말의 숨은 뜻은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매순간 순간 만나는 모든 일이 어찌될지 몰라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 상황 너머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회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분명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코로나 사태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며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의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간구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구하는 걸까요? 그 답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이며 또한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저 허공을 향한 절규 혹은 신을 향한 치성으로 우리의 기도가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이는 기도를 받으시는 이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를 기반으로 감사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자는 어려움 속에 갇혀 그 생각이 편협해지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유연하고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